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원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웅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순천시, '국내 대표 힐링도시' 떠올라

순천시가 자연과 생태 정원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국가정원호, 세계 5대연안습지인 순천만 등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한 해 906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봄 여행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주도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순천이 인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에는 4월 봄바람이 불면서 자연생태와 함께하는 순천형 웰스투어, 순천만 국가정원 1억송이 봄꽃축제, 전통의 삶이 살아 숨쉬는 낙안읍성, 추억의 드라마세트장, 봄을 입으로 느끼는 산나물 미식 여행 등 순천은 봄을 맞아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풍성하다.

순천이 여행과 힐링의 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립 지역자원을 활용해 관광 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순천형 웰스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웰스투어는 투어 전·후의 건강측정과 마음과 몸의 치유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이 필요하거나, 여행을 통해

웰스투어·봄꽃축제·산나물 미식 여행 등 봄을 맞아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풍성



힐링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박 2일형인 힐링코스과 치유코스, 당일형인 나들이코스 외에 도심투어 코스, 농가 체험코스 등 2개 코스를 추가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 편의를 위해 주말, 주중 요일에 관계없이 참가자의 일정과 요구 사항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추천받으면 어딜 가든, 무엇을 먹든 맛있다며 자신 있게 엄지를 세운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나온 순천의 먹거리야말로 올 봄 꼭 먹어봐야 한다.

우리의 삶을 안아주는 따뜻한 국밥, 새콤한 초고추장으로 맛있게 버무린 서대동무침, 입안 가득 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채비빔밥, 순천만 갯벌의 꼬막 무침과 장뽕여탕 등 순천의 산과 바다에서 나는 귀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한 한정식 등은 관광객들의 봄 입맛을 만족시키는 데 충분하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를 한가득 품고 있는 조계산에는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송광사와 태고종의 본산인 선암사가 자리하고 있고, 양사찰을 연결하는 등산로에 있는 보리밭길은 등산객들에게 입소문이 난 곳이다.

올 봄 순천을 방문하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한 봄을 바라다면 순천에 한번 가봄직하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확산 총력

신청 농가 등 100여 명 참석 안정생산 재배교육 실시

나주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2청사(왕곡면) 대강당에서 '논 타작물(총채 벼)안정생산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는 논 타작물(총채 벼) 신청 농가 및 관심농가, 농업인상담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총채 벼(목양 영우 등) 안정생산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사례 집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과 불안정한 쌀 값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해 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콩·팥 등 두류 및 잡곡류를 비롯해, 총채 벼,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품목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연말 기준 양곡 재고는 186톤에 이른다.

지난 해 정부의 매입량 확대 등으로 쌀값이 33%상승했지만, 쌀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논 타작물 전환제도는 생산 농가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과 과잉 공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가 참여를 당부했다.

논 타작물 작목별 재배기술 등 문의사항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배기술지원과(339-7483)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경제청, 홍보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홍보마케팅 정책방향의 길잡이 역할 톡톡히 해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최근 광양경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제1차 홍보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입주기업,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올해 홍보마케팅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점시책에 대하여 참신한 여러 홍보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홍보 활동'의 성과로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는 물론, 투자 활성화 기반이 탄탄해 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3월 말 단행한 홍보마케팅팀 개편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과 온라인마케팅의 기능 강화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한 여러 제안 등 차별화 된 새로운 방향 정립을 주문했다.

강요석 광양경제청 직무대리는 "홍보조직의 마케팅 기능 강화로 홍보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분석과 조언이 어찌보다 절실하다"며 "효과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야심찬 조언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화순군, 행정·민원

제도 개선 '우수상'

화순군이 18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남도가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된 6개 시·군 사례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할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화순군은 지난 2016년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식품원료로서 유통이 제한된 작두콩 꼬투리(깍집)를 식품원료로 등재하기 위해 농가와 군, 농촌진흥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17년 꼬투리의 제한적 사용(미숙꼬투리)을 인정·고시한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미숙꼬투리를 식품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전국 작두콩 재배농가의 영농이 안정 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유통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2개소 선정

봉강면·다압면, 귀농귀촌인 대상 다양한 사업 발굴

광양시는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8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봉강면과 다압면 주민자치센터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2016년 금호동 '뫼밭&문화&나눔마을 만들기'를 시작으로, 2017년 중마동 청불

뫼(청춘을 돌려다오~ 뫼음을 다오~), 올해 봉강면과 다압면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도모

하고 권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는 봉강면 주민자치센터 '귀농·귀촌 멘토링 우리 함께 가요' 다압면 주민자치센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실'로 각각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 해룡면-새순천라이온스클럽 나눔 협약



순천시 해룡면과 새순천라이온스클럽은 최근 순천시 해룡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정길 해룡면장을 비롯한 새순천라이온스클럽 장성욱 회장 및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전 새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및 회원 20여명은 주택이 노후하여 보수가 필요한 해룡면 남가마을의 장애우 가정에 25만원에 상당하는 도배와 장판교체, 집수리 등을 실시하여 주변의 주민들로 부터 큰 호

응과 찬사를 받았다.

협약서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지역 불우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매년 1회이상 나눔 문화를 실천하며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새순천라이온스클럽은 1994년 설립하여 55명의 회원이 본연의 비쁜 업무중에도 철도운동장 복지식당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집수리, 이·미용, 저소득가정 불품 지원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